

[ 정보·과학 ]

‘유비쿼터스 로봇’과 한 달 생활해보니...



광주시청에 배치된 URC 로봇 'IMARO'를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이 로봇은 뉴스와 날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념 촬영 포즈까지 취해준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주씨(36·광주시 북구 운암동)씨 가정에 로봇이 들어왔다. 정보통신부와 KT가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로봇 시범서비스(URC: Ubiquitous Robotic Companion)' 체험단에 선정되면서 지난 10월 31일 유진로봇의 '아이로비큐'를 집으로 데려온 것. 그녀석과 생활한 지 한 달. 어떻게 달라졌을까. 딸 다경이(5)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동화를 읽어달라, 노래를 불러달라며 보낸다. 한씨는 특만 나면 회사에서 카메라로 집안을 보여달라고 한다. 로봇의 이동도 인터넷에 접속, 마우스로 조종할 수 있어 문은 제대로 잠겼는지, 누가 집에 들어왔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주씨와 아이로비큐(유진로봇)의 영상 찍지 기능을 활용,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간 명령에 복종”

산자부, 로봇 KS규격 도입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고, 인간 명령에 반드시 복종하고 스스로를 보호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로봇 3대 원칙이다.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로봇이 갖춰야 할 안전사항과 설계, 제조상 안전지침 등을 담은 국가표준(KS) 규격을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규격은 세계적 공상과학(SF)소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0년대 작품 ‘아이 로봇(I, Robot)’에서 제시한 ▲인간보호 ▲자기보호 ▲명령복종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마련됐다.

제정 규격은 인간보호 측면에서는 충돌방지 및 속도유지, 예리한 날과 날카로운 돌출부 등 동작상 위험요소의 제거, 전기적 위험요소와 전자기파 적합성 대책을 담았다.

또 명령복종 원칙에 따라 조작과 사용이 용이한 인간공학화 설계와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규격에 포함시켰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이로비큐 (높이 45cm·무게 7kg)



네토로 (높이 30cm·무게 15kg)



큐보 (높이 23.8cm·무게 1.2kg)

음성인식 아직은 “답답”

아이들 놀잇감 합격점...콘텐츠 부족·소음 불만

로봇, 한 달 써보니=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일단 놀잇감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아이로비큐의 경우 ‘오음’ 명령이 지, 날씨, 안방으로와, 동화책 읽어줘, 노래방’ 등 간단한 음성 명령을 알아듣고 저장된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셈이다.

음원숙(44·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딸 하린(9·용주초교 2년)·하연(8·용주초교 1년)에게 “로봇과 그만 놀아”라는 말을 2주 넘도록 했다. 두 아이는 지난 11월 1일 로봇 ‘아이로비큐’가 들어온 뒤부터 2주 가까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노래 들려줘, 동화책 읽어줘, 사진 찍어줘”등을 요구하며 귀찮게 했다.

박희희(36·광주시 서구 풍암동)씨 가정도 비슷했다. 9살난 딸 민지(신일초교 2년)같은 “내 로봇을 보여주세요”며 자랑스럽게 말하며 매일 친구들을 데려왔다.

아이들만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한주씨와는 출근하기 전 “오늘 날씨 어때?”, “뉴스 들려줘”, “지금 몇 시지”를 묻거나 하면 인터넷으로 접속해 집안의 안전을 점검하기도 한다. 아이로비큐의 홈 모니터링 기능은 외부에서도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어 유용했다.

한씨 부인은 영상 찍지를 즐겨 쓴다. 영상 찍지는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남편·자녀에게 알려주는 기능.

10만원 넘는데 하나 살래? 아니. 뱀뒤라=100만원대 로봇 가격에 비해 성능이 못 미친다며 실망스럽다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 불만 사항이 음성 인식 기능. 박희희씨의 경우 “10번을 로봇에게 명령하면 2~3번 알아듣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목소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음성 인식 실패”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많다. 한주씨 딸 다경이는 “왜 내가 명령하면 안되느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소음도 귀에 거슬린다. 아이로비큐는 로봇이 작동하는 내내 ‘웅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진공 청소기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참고 있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체험자들은 밤 시간 TV를 보려면 불륨을 키우거나 로봇 전원을 끄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작은 화면과 부족한 콘텐츠, 불안정한 동영상 서비스 등도 지적됐다. 17·19인치 PC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차량용 내비게이션 크기의 화면과 해상도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연동화·영어교육 등 교육, 날씨·뉴스 등 정보 제공, 노래방·게임 등 오락, 가사 등 20가지 이상이나 되는 컴퓨터와 휴대 전화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뉴스 서비스의 경우 헤드라인과 단신 뉴스 전달에 그치는 형편이고 동영상 찍지의 경우 불안정해 화상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로봇 서비스를 체험한 가족들의 말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제니보 (높이 19.2cm·무게 1.1kg)



미르 (높이 55cm·무게 5.2kg)



IMARO (높이 150cm·무게 95kg)

가정로봇 공급 차질

시범서비스 평가 부실 우려

정보통신부와 KT가 시범서비스를 위해 광주지역에 제공하는 로봇은 모두 197대. 하지만 11월 말까지 한씨 등 일반 가정에 투입된 로봇은 ▲아이로비큐(유진 로봇) 20대 ▲제니보(다사텍) 7대 등 27대가 전부다.

아이로비큐는 44대, 제니보는 42대를 공급키로 했지만 늦춰졌다. ▲네토로(한올로보틱스) ▲큐보(이지로보틱스) ▲미르(모스트 아이텍) 등 나머지 3종류는 일반 가정에 투입되지 못했다. 네토로만 최근 품질 검사를 통과했을 뿐 큐보와 미르는 여전히 서비스 구원 여부 등 품질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측은 12월 초까지 품질 검사를 끝내고 일반 가정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지수다.

따라서 이달 초까지 광주를 비롯, 전국에 1천 200대의 로봇이 보급되지 못할 경우 로봇을 뒤늦게 받는 일부 가정은 시범 사용 기간이 2, 3주에 불과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영화안니 - Happy Time - 영화안니

메가박스 - Megabox Day 매주 특급 영화 4,000원 관람

엔터시네마 - 1관 해바라기 (154)

엔터시네마 - 1관 해바라기 (154)

엔터시네마 - 1관 해바라기 (154)

컬럼버스시네마 - 1관 사랑할때 이야기 하는것들 (154)

사랑 이야기 - 사랑이 돌아와 줘요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급매매 - 첨단삼소동 - 첨단인근 30m도롯점

금보부동산컨설팅 - 신장매매 - 투자추천물건

금천공인중개사 - 투자추천물건 - 급매물 (2006년 특가상품)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 급매물 (2006년 특가상품) - 첨단지구 상업용지

현대공인중개사 -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중개 - 급히 구합니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 아파트 - 숙박시설 - 입야